

다사다난했던 丙戌年을 보내면서...

친애하는 전국조경수회원님과 임원님 여러분!

산림 및 조경분야에 평생을 몸담아 왔고 인생의 마지막 봉사과 헌신할 기회라 여기며 협회 회원의 안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조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협회장직을 맡은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임기가 다되어가는 것을 볼 때 세월은 참으로 빨리 흘러가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새 희망과 새 꿈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출발한 丙戌年은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갈등, 내수부진에 따른 경제의 침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혼란, 미국 등과의 FTA체결을 위한 마찰, 북한 핵실험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협회 회원들은 온 국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녹화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조경공간 창출을 위해 묵묵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금년에 광주·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경남 하동에 조경수 유통센터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대구·경북지역에 유통센터를 조성하는 등 조경수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발판을 확고히 하였고 협회 회원들을 위해 조경수생산기반시설을 위한 토양개량, 장비 및 농특회계 조경수 생산용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해외기술연수, 우수모범농장 표창, 조경수 나누어주기, 북한에 조경수 보내기 운동 참여, 조경수생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와 조경수 정부고시가격의 인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협회의 임원님들과 각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한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택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협회 회원들의 권익과 조경수산



全宇錫

(社)韓國造景樹協會會長

업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여기저기서 조경수의 구입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조경수는 특성상 생물이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10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우량조경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세한 농가가 많고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생산제반비용이 상승하여 우량조경수 생산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원활한 공급이 갈수록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나, 수요기관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있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굵직굵직한 정책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협회 회원들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수종, 신기술의 개발과 우량조경수생산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있으며 조경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생산 환경에서 생산자의 권익과 보호가 없다면 더 이상 이러한 노력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관계기관이나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생산자의 권익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되고 조경계 모든 분야에서 힘을 모아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노력하고 전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원님과 회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에 어렵고 이루지 못한 일들은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차분히 정리하여 우리가 이루어야할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조경공간의 창출과 도시녹화를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시고 더욱더 노력하여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사업과 희망이 솟아나는 값진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세계화 속에서 국민의 삶과 질은 더욱 향상되고 우리나라의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협회원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할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걸맞게 우리 회원들이 그동안 경험하고 연마한 지식과 기술을 총합하여 우량조경수생산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아름다운 조경공간을 만들어 조경인들의 긍지를 높여나가는 한편 회원 상호간 친목을 통하여 조경수생산자의 권익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 우리협회 발전과 조경산업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다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전) 전북서부지부장님이신 **古 이 일병** 지부장님의 영전에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또한 항상 협회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협회 임원 및 회원(사)님과 산림행정당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 12.

(사)한국조경수협회장